



벤처캐피탈에서 운영하는 창업지원 전문기관 “광주드림파크”

광주드림파크

기업의 기술은 인간의 지능, 자금은 인간의 혈액과 같은 필수 요소이다. 기업에서 성공의 비결은 무엇일까? 전문가마다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 기술을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견해도 있는 반면,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중에는 기업의 가장 중요한 성공요소를 경영능력에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필자가 기업 현장을 방문하며 기업의 입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애로 사항은 자금인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필요를 보는 시각은 각각의 성공요소를 평가하는 입장에 따라 지표가 다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하여야 한다.

기술이 중요하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하위 레벨의 기술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승부할 수 있는 원천기술이나 선도 기술을 의미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기술은 중간단계나 하위 기술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의 입장에서 자금부족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기업은 위기의 극복을 위한 단기자금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자

금을 투자하거나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시장의 진입과 안정적 매출액을 확보하는 단계까지의 자금 전략에 근거한 자금의 확보인 것이다.

그렇다면, 애로사항인 자금이나 기술이 해결된다면 과연 기업은 성공할 수 있는 것인가. 전문가들의 입장은 아니오(NO)이다. 다시 말해 어느 한 분야만 해결된다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자금과 경영능력이 확보된 준비된 기업을 선정하는 것이고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 회사나 벤처캐피탈은 기술과 경영능력이 검증된 기업을 선호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창업보육사업은 1993년 민간의 영동창업보육센터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안산창업보육센터가 설립되면서부터 시작하여 1999년 이후 대학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보급되어 부흥기를 맞이하여 2007년 말 현재 269개의 창업보육센터에 4,330여개 창업기업이 입주하여

운영중에 있다. 창업 후 5년 이내인 기업의 초기단계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창업 성공률을 극대화 한다는 전략이 결실을 맺어 일반창업기업의 성공률 32%인데 반하여 비 졸업기업의 성공률은 70%이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기존 정부의 정책이나 인프라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성공률이 좌우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광주드림파크는 벤처캐피탈인 (주)바이넥스트창업투자대표 김영훈 회장의 광주지점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산형 창업보육센터이다. 기존 대학의 인프라인 기술을 기업에게 제공하는 형태와 달리 창업투자회사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경영과 자금분야에 특성화하여 기업을 지원하여 성공률을 높이는 운영모델로 2006년 1월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손을 잡고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교수와 연구원 창업을 위주로 대학 창업보육센터가 운영되었다면 광주드림파크는 기업출신과 생산형 기업을 위주하여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하였거나 제품의 생산단계의 기업을 지원한다는 전략적 관점에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최대 애로사항인 자금은 창투자 자체의 벤처펀드를 활용하여 투자하고 육성시킨다는 전략과 전문가를 통한 자체 경영컨설팅을 통하여 코스닥 상장과 글로벌 기업을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입주사인 (주)아이엔씨(대표 조성호)는 마이크로 카본코일의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미래의 첨단소재로 불리는 탄소나노튜브와 같이 향후 첨단 소재로 각광 받고 있으며 이미 로봇의 촉각센서, 전자파 흡수체, 마이크로 안테나 등에 응용되고 있으며 그림당 10만원을 호가하는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의 소재로 전량 일본에 수출하고 있다. 제너럴옵텍스(대표 김호영)는 LED 조명과 각종 전자기기의 열방출 시스템을 보유한 회사로 최근 써멀 컴파운드를 개발하여 글로벌 진출을 추진 중이다. 이 제품은 필름, 코팅제, 사출물의 소재로 개발되어 열전달 물질과 시스템 전문회사로 성장하여 코스닥에 상장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외에도 정밀금형과 공작기계 그리고 반도체 공정을 활용한 광부품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11개회사가 광주드림 파크에 입주하여 있다

창업보육관련 지원기관의 역할

창업보육사업의 성공요소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에 있다. 성공적 운영을 위해 보육매니저의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침이 없다. 보육매니저는 때로는 가정에서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때로는 멘토로서 상담 및 지도의 역할을 하는 등 수시로 기업의 굵은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지역의 중소기업 진흥공단이나 신용보증기관, 기술, 마케팅 지원부처 등의 지원을 연결해주거나,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도우미 'SPI 1357' 제도 등과 같은 최신 정보를 제공해 주는 등 역할을 해내야하고 때로는 기업의 경영전략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판단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둘째는, 지역 중소기업 유관기관간의 연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중소기업지원기관, 테크노파크 등이 연계한 유기적인 지원체제를 더욱 탄탄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특화된 창업지원기관의 역량을 권역 내 타 기관과 공유하는 권역별 특성화 공유 지원사업 등을 활성화 하여야 한다. 아울러, 창업보육센터는 입주 중소벤처기업이 고수익을 기대하는 기술, 아이디어를 전개해 가는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성장·육성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한다.

셋째로, 창업보육입주기업의 성공은 무엇보다 창업자의 기업가 정신에 달려있다. 지원기관과 보육매니저 등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지원에 그칠 따름이다. 벤처캐피탈 업계에서도 업체 투자결정시 심사기준으로 무엇보다도 경영진의 비즈니스경력, 교육과정, 사업동기, 도덕성 및 핵심역량 등을 중요한 평가요소로 삼고 있다.

(주)바이넥스트창업투자는 현재 8개 927억원의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회사로서 대성그룹(회장 김영훈)의 계열회사이다. 2007년 벤처캐피탈 업계 최고 수익률(약 2,700%)을 기록한 디지텍시스템스에 투자할 만큼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투자기업 중 40개사 이상을 코스닥에 상장되도록 지원한 실적이 있으며 이러한 전문성을 가지고 창업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2006년에 대구와 광주에 드림파크를 운영중이다.

